

## 임종과 남녀유별

— 여성생활사자료집과 『자기록』을 중심으로\*

이 경 하\*\*

### [초 록]

본고의 목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문, 묘지명, 행장 등 남성의 기록과 「자기록」 같은 여성의 기록 등 죽음을 계기로 지은 글에서 임종 시의 남녀유별을 비롯한 형상화를 고찰하고 그 근거가 되는 ‘고서’를 찾아보려 하였다. 그 근거는 ‘예기’ ‘상대기’편의 “남자불사어부인지수, 부인불사어남자지수”(男子不死於婦人之手, 婦人不死於男子之手) 문장이었다.

임종 시의 남녀유별은 경전의 근거는 분명하나, 제문 등을 미루어 보건대 현실에서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한 듯하다. 임종 시의 남녀유별에 관한 한, 17세기에는 해당 기사가 전혀 없고, 18세기에는 많고, 19세기에는 오히려 적었다. 전근대 사회에서 임종 때도 남녀유별

---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주제어: 임종, 남녀유별, 예기, 남성의 기록, 「자기록」

One's End,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Records of the Proprieties, Records of Men, Records of Women

이 예의 이름으로 존재했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본고에서 밝혔다.

## 1. 서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런데 임종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간호학에서 임상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현대에 기울어 있다.<sup>1)</sup> 전통 시대의 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sup>2)</sup> 한계도 있고 어디나 그렇듯 분야가 다르면 서로 잘 모르는 것 같다. 조선 시대에 많이 쓰인 제문, 묘지 등은 죽음을 계기로 쓰는 것인 만큼 임종의 순간에 대한 기록이 많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제문 등에서 ‘영결’과 ‘임종’의 용례를 보면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영결’은 글의 처음이나 끝에 자주 나오고 ‘임종’은 망자가 죽는 순간을 뜻한다. ‘영결’은 제문 등을 왜 지금 쓰는지, 글 마지막에서 끝맺음용으로 자주 쓰인다.<sup>3)</sup> ‘임종’은 그야말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특히 여성은 죽음을 통해서만,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세상에 드러났던 존재였다. 그렇게 자신이 살다

---

1) 변영순(1990), 「임종간호의 역사적 배경」, 『임종과 간호: 호스피스 케어』(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 편), 서울: 수문사, pp. 13-27.

2) 신동원(2014),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파주: 들녘; 대한의학사회에서 주관하는 『의사학』 등에 실린 논문들처럼 전근대 사회의 의료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3) 몇 가지 예를 든다. “鳳九舍恤在疚, 不暇措意文字, 莫得以數行哭訣.” 尹鳳九, 『屏溪集』 卷45, 「祭亡室令人朴氏文」, 『韓國文集叢刊』 卷204, pp. 416-417; “今當永遷, 不可無訣.” 李載亨, 『松巖集』 卷5, 「祭仲崔氏婦文」, 『韓國文集叢刊』 卷179, p. 460; “訣于柩前, 庶幾有頷.” 金春澤, 『北軒集』 卷7, 「祭鄭氏姑母文」, 『韓國文集叢刊』 卷185. 맨 앞의 예는 글 앞에 나오는 ‘영결’이고, 뒤에 두 예는 글 뒤에 나오는 ‘영결’이다.

갔음을 후대에 알렸다. 그런데 임종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생로병사가 인간 누구나 겪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전근대 시대에 여성에게 죽음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이 글에서 주로 분석한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에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문집 가운데 1650~1750년 사이에 태어나 18세기에 생존했던 상층 남성 작가들의 문집 중에 여성과 관련된 글을 뽑아 모아서 역주한 것이 실려 있다. 여성 관련 작품 수는 천 편이 넘고, 제문, 행장, 묘지 등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sup>4)</sup> 이 외에도 여성생활사자료집은 17세기,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자료정리가 이루어졌다.<sup>5)</sup> 저자는 역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문집을 남긴 상층남성이고 대상 여성은 주로 상층이다. 이 논문에서 적게 다룬 시기는 관련 자료가 적을 뿐이다.

그리고 「즈기록」은 본고에서는 김경미가 번역한 것을 이용했다.<sup>6)</sup> 「즈기록」은 풍양 조씨(1772-1815)라는 상층 여성의 한글 산문으로, 모친과 남편을 잃은 슬픔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기록한 글이다. 작자는 서울의 경제적으로 풍족한 무반의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나, 어려서부터 가족의 죽음을 많이 겪어야 했다. 동생들 세 명이 죽었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죽고, 20세에는 급기야 남편이 죽는다.<sup>7)</sup> 이 글에는 특히 어머니와 남편에 관해 자세히 썼다.<sup>8)</sup> 남편의 죽음에 남녀유별 이야기가 나온다. 일

4) 김경미(2009), 「서문」, 이경하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pp. 4-5.

5) 김경미 외 역(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5』, 서울: 보고사 ; 김경미 외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 서울: 보고사.

6)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자기록』, 서울: 나의시간, pp. 1-279.

7) 풍양 조씨의 친정과 시집에 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경미(2014),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8) 작가의 인물 관계성에 관한 연구로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홍인숙(2016),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 불행감의 근원과 애도문학으로서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pp. 67-95.

찍이 「즈기록」은 자료 발굴 및 소개 이후에, 죽은 남편을 따라 자결하지 않았기에 ‘실패한 열녀’ 이야기로도 읽혔다. 이후 작가의 관계성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9)</sup>

남녀유별보다는 부부유별, 내외법에 관한 연구가 많다. 유교의 재해석이란 차원에서, 부부유별에서 ‘별’(別)의 뜻을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sup>10)</sup> 그러나 임종 시에 남녀유별이 고서에 나오는 가치였던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지하듯, 조선 시대 상례 절차는 현대에 많이 간소화되었다.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중 하나가 예란 이름으로 행해진 상례의 복잡함 절차이다. 초혼 같은 의식, 상주가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오복제(五服制) 등 번다한 예제가 없어졌고, 초·종례 전반에서 크게 간소화되었으며, 대행업체까지 생겼다.<sup>11)</sup>

본고의 목적은 제문, 묘지명, 행장 등 남성의 한문산문과 「즈기록」 같은 여성의 한글산문 등 죽음을 계기로 지은 글에서 임종 시의 남녀유별을 비롯한 형상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고서’를 찾아보려 한다.

- 
- 9) 박옥주(2001), 「풍양조씨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즈기록」은 이 논문을 필두로 최근 논문까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김정경(2018),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 10) 이경미(2007), 「남녀유별 예의식[내외법]이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 『服飾』 57-1, 한국복식학회; 김승혜(1998), 「‘부부유별’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孔子學』 4-1, 한국공자학회; 다음의 책에 부부유별에 관한 고전의 여러 해석이 정리되어 있다. 이종묵(2011), 『부부』, 파주: 문학동네, pp. 95-106.
- 11) 이희재(2008),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 『유교사상문화연구』 31, 한국유교학회.

## 2. 임종 시 과거와 현대의 차이

임종 시에 현대와 전근대의 같은 점은 임종하지 못한 경우의 안타까움이다. 살아 있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눈에 담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sup>12)</sup> 다만 예전에는 말 위에서 부고를 듣고,<sup>13)</sup> 현대에는 기차에서 휴대폰으로 소식을 듣는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고 가까운 지인을 초청하거나,<sup>14)</sup> 곧 죽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생각해 약을 물리지 않는 것<sup>15)</sup> 등 모두 과거나 현재나 같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곡기를 끊은 경우<sup>16)</sup>는 현대로 치면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현대와 전근대의 가장 다른 점은 제사를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현재는 종교에 따라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심리적으로

- 
- 12) “父親捉余手而叩地曰：“爾來何遲也?” 遂言汝臨歿屢欲見我一面。” 金昌翁, 『三淵集』, 拾遺 卷25, 「祭亡妹文」, 『韓國文集叢刊』 卷167. 이 글은 김창흡이 16세에 해산으로 죽은 여동생 이씨 부인을 위해 쓴 제문의 일부이다. 김창흡이 이 여동생을 위해 쓴 제문이 3편이고, 또 다른 오빠 김창협이 쓴 것이 4편, 송시열이 쓴 묘지명도 있다. 아버지는 유명한 김수항이다.
- 13) “端陽日放衙獨坐, 有危報至, 卽夜載汝兩幼弟, 冒雨馳八十里, 馬上聞訃. 遂哭于野.” 朴齊家, 『貞菴閣文集』 卷3, 「亡女尹氏婦墓誌銘」, 『韓國文集叢刊』 卷261. 이 글은 박제가가 둘째 딸을 위해 써준 묘지명이다. 자기가 스물일곱에 낳고 오십이 넘어 딸을 잃었다니 딸이 서른 즈음에 죽은 셈이다.
- 14) “遺疾之數日, 招要諸至親, 若將有訣別之意. 不肖等諫曰: “患候不至沈篤, 何過動心? 多人酬酢, 恐妨調攝之節矣”…盖夫人之知命已審, 猶整暇如此, 而不肖等冥迷無識, 卒不能仰請一言之誨.” 李福源, 『雙溪遺稿』 卷8, 「先妣遺事」, 『韓國文集叢刊』 卷237.
- 15) “諸子驚遽進藥, 飲曰: “疾已不可爲矣, 然爲汝輩且一嘗.” 遂命席東首, 招諸子女訣別, 各致 勉戒.” 趙德鄰, 『玉川集』 卷13, 「恭人洪氏墓碣銘 并序」, 『韓國文集叢刊』 卷249.
- 16) “後十餘日, 吾父自西邑來哭, 聞姑氏臨終時事, 曰: “姊氏老人, 三日絕藥, 其能全乎? 使余在京, 當不至此.” 仍嗚咽流涕, 小子等亦嗚咽流涕.” 朴胤源, 『近齋集』 卷27, 「祭仲姑文」, 『韓國文集叢刊』 卷250.

그 중요성이 덜해진 것은 사실이다. 성별에 상관없이 말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절대적이었다.

공인은 임종할 때에 첩을 오라 하여 “내가 김씨의 제사를 받들었는데 내 마음만큼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내가 죽으면 네가 마땅히 제사를 잘 받들어 모셔야 한다. 반드시 이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라 하였다.<sup>17)</sup>

망자 풍산 유씨(1646-1717)는 서애 유성룡의 손녀이며 이만부의 두 번째 부인으로, 23세에 시집가서 죽을 때까지 30년을 남편과 함께했다. 이만부의 처음 아내의 제사를 잘 받들었고, 자식이 거듭 죽은 후 자손을 보기 위해 측실을 들였다. 인용문 바로 앞이 그 일화이고, 이 인용문 끝에 작자는 상층 남성지식인이 여성 대상 제문 등에서 잊지 않는 한 마디,<sup>18)</sup> “옛날 현숙한 부녀자의 행실”이라 덧붙였다.

병이 위독할 때에도 여전히 그 아이의 생일 제사를 지내라 하며 “내가 아무리 병들었다 해도 어찌 차마 그 아이를 굶게 할 수 있겠느냐.”라 하였고, 임종할 때까지도 그리워해 마지않았다.<sup>19)</sup>

망자 유인 이씨(1652-1712)는 이세백의 큰딸로, 권상명의 아내이자 권

---

17) 이재형, 「亡室恭人豐山柳氏墓誌」, 김남이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서울: 보고사, p. 225.

18)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작된 『내훈』 류의 관찬 여성 규범서 뿐만 아니라, 「우암선생계녀서」나 「한씨부훈」 같은 민간 규범서도 급증하는 것이 18세기 상황이다. 그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박무영(2001), 「호연재 「자경편」의 서술방식과 여성문화적 성격」, 『한국문화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 209-210; 박무영(2003),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연구』 32, 한국한문학회.

19) 이의현, 「伯姊孺人墓誌」, 김남이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서울: 보고사, p. 292.

섭의 어머니이다. 권섭의 어머니는 한글소설 필사로 유명하다. 인용문에서 ‘그 아이’란 10세에 죽은 양자를 말한다. 예전에는 망자의 생일날 제사를 지내고 제문을 지었다. 지금도 돌아가신 후 첫 생일은 챙기지만 해마다 그러진 않는다.

예전에는 죽은 후에 생전에 부친 편지를 받는 경우도 흔했던 것 같다. 아래 인용은 그런 예이다.

당신의 부음을 들은 다음날 주친의 아전이 당신이 두 번에 걸쳐 쓴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 바로 정월 4일과 14일에 쓴 것이었소. 편지에 다른 말은 없고 오직 당신과 딸아이에게 천연두가 시작되어 피신하는 모습을 실로 곡직하게 써놓았고, 그 말미에다가 “너무 많이 놀라지 마시고, 날이 추우니 설불리 나오지 마세요.”라 하였지요.<sup>20)</sup>

이 글의 망자는 안동 권씨다. 권수하의 딸로, 조덕린과 혼인하였는데, 해산을 한 지<sup>21)</sup> 하루 만에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그때 함께 천연두에 걸린 딸도, 낳은 아이도 곧 죽었다. 옛날 주된 안부를 묻는 매체는 편지였다. 지금은 전화나 휴대폰 문자가 있어서 죽은 뒤에 망자의 편지를 받을 일은 없다.

불길한 꿈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전근대 제문 등의 특징이다. 꿈은 좋은 일, 나쁜 일에 다 등장한다. 태몽, 혼인할 때, 유배에서 풀릴 때,<sup>22)</sup> 망자의 덕을 드러내는 일화<sup>23)</sup> 등 외에 이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꿈에도 몰

20) 조덕린, 「祭亡室恭人權氏文」, 김남이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서울: 보고사, pp. 25-26.

21) 이경하(2018), 「상층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죽음의 양상 : 『18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pp. 18-19.

22) “今歲三月之三, 余自沔川解謫歸家, 人無知者. 是夜仲女夢, 見吾季來告曰: “兄氏駕方到矣. 夕糧有無, 草堂窓壁破壞, 何不葺理也.” 語丁寧, 色若有憂.” 申景濬, 『旅菴遺稿』 卷6, 「祭故弟弟婦文 戊子」, 『韓國文集叢刊』 卷231.

랐다는 녀두리, 꿈에도 잘 안 나타난다는 원망, 저세상에서라도 자식을 잘 당부한다는 말은 제문 등에 흔하다. 이밖에 죽음을 예고하는 흉몽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절기가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내가 선산에 갔는데 이튿날 밤 꿈에 너의 얼굴빛이 초췌하고 슬피 울며 절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아 깜짝 놀라 깨어나니 당황스럽고 마음이 마치 잃은 듯하여 장비를 꾸려 돌아갔다.<sup>24)</sup>

편지를 쓰고 출발하였는데, 내 꿈에 네 시어머니가 살덩이 같은 저민 고기 약간을 손에 들고서 황망히 초조해하며 가는데 자녀에게 우환이 있는 듯 보였다. 내가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으나 다만 꿈속의 상황이 흐릿하여 증명하기 어렵다고 치부했는데, 어찌 16일 새벽에 마침내 너를 구하지 못하고 나로 하여금 18일에 부고를 받고 통곡할 줄을 뜻하였겠느냐.<sup>25)</sup>

앞은 송징은의 딸 제문이고 뒤는 황윤석의 며느리 제문이다. 송징은의 예에서 보듯, 망자가 꿈에 나와 절한다는 예는 흔하다. 죽은 조상이 망자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황윤석의 맏며느리 금성 임씨(?-1780)는 임적하의 딸이며 황수룡의 아내이다. 며느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길을 떠난 날, 황윤석은 죽은 아내가 고깃덩어리를 손에 들고 황망해 히는 불길한 꿈을 꾸고 곧이어 며느리의 부고를 들었

---

23) “先祖妣好生之德，異於凡人。嘗曰：“我幼時，得二草虫，繫頸而嬉，因懸於戶樞，先妣夢二青衣人來跪而告曰，‘死在頃刻，敢乞殘命’。及覺而見草虫懸戶，卽解而放諸林薄中。”李德壽，『西堂私載』卷12，「先妣行錄」，『韓國文集叢刊』卷186.

24) 송징은, 「祭亡女文」, 황수연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서울: 보고사, p. 24.

25) 황윤석, 「祭大媳文 庚子三月」, 이경하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p. 349.

다. 황윤석은 아내에게 특별한 사건들, 즉 임신과 유산, 출산, 어려서 죽은 자식 등을 중심으로 아내의 생줄기를 지은 사람으로 유명하다.<sup>26)</sup>

### 3. 남성 기록에서 임종의 형상화와 남녀유별

#### 3.1. 기록의 전형성

임종할 때도 뒤에 남는 (시)부모에 대한 걱정뿐이었다는 것은 흔히 효로 해석되었다. 제사를 챙기고 제수를 미리 마련함이 효라고 해석되던 시절, 어유봉의 육촌 형수 유인 평산 신씨(1637-1669)의 마지막도 그렇게 그려졌다.<sup>27)</sup> 평산 신씨는 신명정의 딸로, 20세에 어유형에게 시집가서, 여러 차례 유산하고 32세에 죽었다. 작자 어유봉은 중매자이기도 하다. 송명흡의 종고모 은진 송씨(1702-1723)는 송병익의 5남 5녀 중 막내 딸로, 22세에 죽은 이사옥 처이다. 송명흡이 그에 대해 쓴 행장에서, 송씨 부인의 어머니가 한 말을 인용하여 은진 송씨가 임종 직전에도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sup>28)</sup> 남편에 대한 걱정도 마땅한 여도로 해석되었다. 이런 예도 있다.

26) 이경하(2018), pp. 9-10.

27) “時當先妣諱辰，忽開瞑視善甫曰：“速往將事！”又命婢摘瓜以助需。其至死不忘孝如此。得年董三十三。”魚有鳳，『杞園集』卷24，「再從嫂孺人申氏墓誌銘」，『韓國文集叢刊』卷184.

28) “吾女之念父母，甚於父母之念渠也，方其疾篤，吾馳往訣焉，則渠扶坐，談笑如平生，臨別，丁寧告後期，無悽苦之色，吾亦不覺其甚危也，別後續以手書，寬吾意，無書數日而訃至，吾女竟欺余矣。”宋明欽，『櫟泉集』卷17，「從姑母令人宋氏行狀 辛未」，『韓國文集叢刊』卷221.

“그만 두세요. 장부가 몸을 숙여 아내에게 손수 음식을 권함은 구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게 하세요?” 내가 부끄러워 짐짓 탄식하며, ‘이는 행장에 갖추어 써야 할 말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지.<sup>29)</sup>

죽기 하루 전날 남편이 공무로 집에 들러 아내에게 미움을 권하자 아내가 만류했다. 한 마디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내는 평소에도 아파도 눕지 못했는데 누웠고, 전에는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날은 잠을 자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아내의 행장에 쓸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여성의 미덕이던 시대였다. 이 글은 제문으로서 대단한 장편인데, 글 첫머리에 아내가 죽기까지 며칠간을 상세하게 적었다. 이종휘의 아내, 최보흥의 딸 해주 최씨(?-1776)는 16세에 당시 14세인 이종휘에게 시집 왔다. 이 글에서 이종휘는 아내가 죽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세세한 것까지 기술하였다.

전근대 사회의 여성에게 자기가 속한 가문의 명예는 곧 자신의 명예였다. 가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염원은 송환기의 글에서 확인된다.

임종할 때 이렇게 말했다. “남편의 상소는 실로 윤리 강상을 바로 잡아 나라의 중묘사직을 위하고자 했던 피눈물 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화를 당해 이렇게 되니 이 어찌 하늘이 끝나고 땅이 다하는 애통함이 아닌가. 신중전의 저승의 원통함을 풀기 전에는 남편 신주는 백 대가 지난다 하더라도 묻지 말고 기다려라.”<sup>30)</sup>

29) 이종휘, 「祭亡室文」, 이경하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p. 492.

30) 송환기, 「贈貞敬夫人宋氏旌閭記」, 강성숙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5』, 서울: 보고사, pp. 352-353.

이 글의 대상인 정경부인 송씨는 송여익의 딸로, 김정에게 시집갔다. 임종 때 언급한 ‘남편의 상소’란 기묘사화 때 중종의 왕비 신씨 복위를 주장한 글이다. 이 일로 남편은 유배되고 이후 신사무옥 때 사사되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는데, 시어머니가 죽자 곡기를 끊고 8일 만에 죽었다. 임종 때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는 신주를 묻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200년이 지나 신씨가 단경왕후로 복위되고 김정 역시 복위되었다. 이 글의 작자 송환기는 송여익의 방계 후손이기도 하다.

삶에 연연하지 않음은 어유봉의 글에서 확인된다. 주인공 망자 정경부인 원씨(1625-1715)는 원빈의 딸로, 17세에 어진익의 아내가 되었다. 어유봉에게는 할머니가 된다. 91세까지 장수했다. 제사를 돌아가며 지냈는데 자기 차례인 죽던 해에는 종손에게 편지하여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며 제수를 미리미리 준비해 보내기도 했다.<sup>31)</sup> 초상 때 유서를 발견했는데, 자식들이 나이가 많은 것을 염려하고, 자기 제사를 간소하게 하라는 당부를 했다.

임종 때 삶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예상하듯,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이명이 지은, 이희조의 아내 정부인 김씨의 묘지명에는 “임종에 평소와 같이 말을 하며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정신과 정력은 또한 대장부도 능히 하기 힘든 것”<sup>32)</sup>이란 말이 나오는데, 남녀의 문제가 기보다는 나이의 문제인 듯하다. 이희조의 아내 김씨도 죽을 때 향년 64세였다니 말이다.

31) “本宗例以輪回行祭, 而夫人當次. 實在明年, 遂親具祭物, 貽書宗姪曰: “明年此日, 人事未可知, 及今備送, 汝其知之.” 其追遠之篤, 慮事之深, 於此益可見.” 魚有鳳, 『杞園集』 卷25, 「祖妣 贈貞敬夫人元氏行狀」, 『韓國文集叢刊』 卷184.

32) 이이명, 「貞夫人金氏墓誌銘」, 황수연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서울: 보고사, p. 296.

### 3.2. 임종 시 남녀유별

제문 등에 나타나기로, 임종 때 남녀유별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한다. 남성의 기록에서, 남녀유별을 지켰는데 안 적었을 가능성은 적다. 여기서의 지킨 예만 보기로 한다.

죽기 전날에 내가 손을 잡고 앉으니, 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옛말을 들으니, 임종 때 비록 부모 자식 사이라도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지 마세요.” 아! 이로써 딸의 뜻과 행실의 대략을 알 수 있다.<sup>33)</sup>

공의 병이 위독해져서 부인이 임종하려 하자, 공이 흘깃 보면서 말하길, “이런 때에 부인이 어찌 올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면서 이르길, “당신이 도리에 맞게 죽고자 하는 뜻이니 제가 감히 어길 수가 없군요.”라고 했다.<sup>34)</sup>

첫 번째 인용은 윤동원의 딸 묘지문이다. 아버지와 딸 사이가 모두 신대우 부녀<sup>35)</sup> 같지는 않을 것이다. 임종 시 신대우 부녀는 애처로움에 서로를 쓰다듬지만, 윤동원 부녀는 남녀유별을 말한다. 두 번째 인용문 이재의 글은 여성의 죽음 순간이 아니다. 여기서 ‘부인’은 정경부인 이씨로, 홍수현의 아내이자 이 글을 쓴 이재의 큰고모이다. 이씨 부인은 그의 외숙이 인현왕후 폐위에 가담해 친정이 정치적 풍파를 겪었으나, 그는 74세까지 수를 누렸다. 17세기에는 그런 예가 없고 19세기의 예를 보자.

---

33) 윤동원, 「亡女李氏婦墓誌」, 이경하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p. 190.

34) 이재, 「伯姑貞敬夫人李氏行狀」, 서경희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6』, 서울: 보고사, p. 98.

35) 이경하(2018), pp. 12-14.

옆에 있던 사람이 부인에게 다리도 베었는데 함께 병간호를 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부인이 말하기를, “내 듣건대 남자는 부인네의 손에서 죽지 않는 것이 예(禮)라고 하였소. 또 내가 가서 보살펴드린들 무슨 도움이 되겠소.”라고 하였다.<sup>36)</sup>

죽기에 앞서 오라비에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여, 남자의 곁에서 죽지 않으려는 뜻을 내보였다.”라고 하다.<sup>37)</sup>

첫 번째 인용은 남편의 임종 때 부인의 말에 남녀유별이 있다. 남편의 목숨이 위태롭자 넓적다리를 베었고 여의치 않자 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유수의 처 변부인의 일화이다. 병을 앓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찢어 피를 흘려 넣었다고도 한다. 남편은 홍경래의 난에 죽었고, 부인은 결국 독약을 먹고 자진하였다. 두 번째 인용문은 오희상의 글에서 각주 11번에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은 오윤상의 처에 관한 기사에 나온 말이다. 『일성록』 정조 10년 11월 11일 기록에 있는 말이라고 한다. 오윤상의 처 김씨는 남편이 죽자 굶어서 죽었다고 한다.

임종 시는 아니지만, 남녀유별을 실천한 예들이 유독 많은 글이 있다. 전우(1841-1922)의 글이다. 전우는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 재혼한 능성 주씨와의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고, 측실에게서 얻은 둘째 딸이 글의 주인공 만정(1884-1902)이다. 만정은 시집도 안 간 채 19살에 죽었지만, 아버지는 딸을 여도에 밝은 사람으로 남기고 싶었나 보다. 9세에 이사를 하는데 남자 종의 등에 업히기를 거부해 걸어가고, 11세에는 난리를 당해 그 어머니를 따라 태안에 갔는데 시냇물이 불자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려 죽을 뻔했는데, 큰아들이 구하여 겨우 죽지 않았다.

36) 성해응, 「節婦邊夫人傳」, 홍학회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서울: 보고서, p. 406.

37) 오희상, 「先伯母貞敬夫人墓誌」, 김기림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서, p. 21.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남자로 하여 등에 업어 건너게 하고 싶지 않았습  
니다.”라면서. 남녀가 친히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논했던 일화,  
집안에 베껴 쓴 『여사서』와 『여계』 7편이 있다는 등 여성 규범서에 관한  
일화 등이 글에 가득하다.<sup>38)</sup>

#### 4. 여성 기록에서 임종의 형상화와 남녀유별

자기록은 곁에서 남편이 병이 나서 임종하기 전까지 다 지켜보고, 살  
아남은 자의 입장에서 쓴 한글 산문이다. 이른바 열녀의 자결시도도 있  
었고, 임종 시 남녀유별도 지켰다.

병이 들어 한쪽이 누우면 환자나 보호자나 서로 눈치를 보게 된다.<sup>39)</sup>

38) “九歲徙家，用僕夫負去。女願求邨嫗代之，不得則徒行。行未幾里，腳痛，長者取  
置僕夫擔上，女不肯俯，僕難於負行。遂倚閤，女竟徒行。十一歲，遇亂，從其母徒  
步入泰安。雨後川漲，女力弱難涉，不得已金輝城欲負涉女。堅不從，遽自入水。水  
衝而倒，長者急救之，得不死。後余問：“當日溺死如何？”曰：“縱死，不欲使男子  
負涉。”社中諸生，論男女不親授受，而於舅婦與祖舅孫婦，疑而未定。余入內問  
之，或曰：“此同於父母無嫌。”女兒：“是亦不親授受，似更善。”諸生竟以此爲正…  
凡古賢婦言行可法者，必皆傳寫成帙。家有女四書，女戒七篇。漢曹大家班昭所  
著，內訓二十章，明成祖元配仁孝徐皇后所著，女論語十二章，唐女學士宋若昭所  
著，女範捷錄十一篇，明劉節婦所著。而四書皆劉節婦男王相字晉升箋註也。余以  
授女兒，渠每喜讀而慕行之…安君晦植，錄得女行數則而來示曰：“處子幼時，以  
先生命，受女四書于晦植。每早澣衣持冊而前，別設一席而坐曰：‘既有父命，不敢  
不從。然男女之禮，不可不嚴。’未嘗一日弛。每值晦植家祀事，雖抱病，必盥洗澣  
衣而對食曰：‘祭先之物，不可媿也。’”田愚，『艮齋集』前編續 卷6，「殤女婉貞行」，  
『韓國文集叢刊』卷333。

39) “오히려 생각하니 남편이 병중에 겁을 먹어 행어나 의원과 남이 병이 중하다 하는  
가 싶어 비록 혼미한 중에도 기색을 세세히 살폈기에 차마 눈물 흔적을 보이지  
못하였다. 혹 병에 해롭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몹시 조심해서 … 친정아버지가 말리  
셨다. “지금도 저는 속으로 지각이 뚜렷해서 남의 기색을 살피는데 차마 어찌 死後  
말을 이르겠느냐?”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 104.

보호자는 환자의 뜻을 받들고,<sup>40)</sup> 가능한 환자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하면서도,<sup>41)</sup> 환자에게 미음이나 약을 억지로 권한다.<sup>42)</sup> 죽을 때는 평소 기거하던 곳에서 죽는다는 원칙도 있었던 것 같다.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의 친정에서 병조리를 하던 남편도 가망이 없다 싶자 주변의 권유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sup>43)</sup> 집으로 돌아가기 전 언니와, 남편 따라 죽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상의를 하고, 당연히 만류를 받는다. 친정 언니와 아버지 때문에 열을 결행하지 못하고, 자기 팔뚝에 칼로 생혈을 내어 남편의 목숨을 연장하려 한다. 남편은 임종에 임박해서도 회복을 믿었는지, 칼을 쓴 아내를 나무라는 눈짓을 한다.<sup>44)</sup>

- 40) “오직 친정아버지만은 한 번도 거스르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고 흔연히 부드럽게 뜻을 받으시며 간절히 권하셨다. 한번은 더운 약을 붙들어 먹이셨는데 정히 다 하시니 아버지가 흔연히 놀리며 이르시기를 “약을 잘 마시니 가히 착하도다. 무엇을 상으로 줄 거나?”하시자 남편이 문득 그 아픈 마음에 실소하며 말했다. “나를 세 살 아이로 여기십니다.” 내가 혹 마시기를 강권하거나 너무 억지로 권하고 자시지 않는데 급급하여 아픈 마음에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친정아버지가 꾸짖으며 하지 말라고 하시고 뜻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어찌 둘 사이가 각별하지 않으리오?”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p. 85-86.
- 41) “그러나 내가 한 번도 희미한 눈물자국이나 남편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아픈 사람이 마음을 쓸까 두려워해서였다. 밖에서는 눈물을 금치 못하여 눈물 흘리고 황망해하나 병자 옆에 가면 어지러운 행동을 못하고 얼굴빛을 고쳐 밝게 하고 더 평안하고 조용히 있었다. 혹 오래 울어서 눈물자국이 가지지 않으면 병자 옆에 가지 않았다.”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 88.
- 42) “남편이 미음 같은 것을 자살 때 괴로이 싫어하여 자시지 않으려 하거나 적게 자시거나 하면 곡기 한 모금이 새로운지라 다들 급급히 마음 풀이며 한두 모금이라도 초조히 요구하였다. 마침내 듣지 않으면 시아버지로부터 이숙대인과 시어머니와 나까지 어린아이와 다른데도 혹 잠깐이라도 억지로 마시지 않음을 짜증 낼 적이 있으나...”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 85.
- 43) “24일이 되어 누워 있는 환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실로 잠깐도 움직일 수가 없었으나 남편은 기분이 좋아져 즐거워하며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아침식사 때 떠났다. 좁은 가마 속에 들어갈 데가 없어 쌍가마에 시어머니가 앉고 남편을 자리째 들어서 가마 속 시어머니 무릎 위에 의지해서 누이고 좌우에서 물러난 뒤 내가 미음을 가지고 가마 속에 머리를 들이밀고 말했다.”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p. 88-89.

또 마땅히 들어가 마지막 살아있을 때 얼굴을 영결하려 하였으나 막상 들어간 뒤에는 차마 견디지 못하고 차마 보지 못할 거동을 대하여 행동이 조용하지 않으면 돌아가는 마음을 도리어 어지럽힐 것이요, 또한 고서(古書)에 죽을 때에는 남녀가 같이 있지 않는다 하니 종신대사(終身大事)의 예를 어기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다만 소리를 삼키고 가슴을 어루만지며 할머니에게 의지하여 엎드려 있었다.<sup>45)</sup>

풍양 조씨는 앞서 시어머니와 잠깐 나와 있다 곡소리를 듣는다. 그게 진짜가 아니었는지 시할아버지의 호통 소리를 듣는다. 방에 들어가서는 할머니 옆에 엎드려 있었다고 했다. 곧이어 진짜 곡소리가 나고, 누군가 조씨의 머리를 풀어헤친다. 이제 진짜 죽음이다.

조선 시대에 왕비가 왕의 임종 시에 유언을 적는 등 궁중에서도 임종 시 남녀유별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닌 듯하다. 예를 들어, 인종비 인성왕후 박씨(仁聖王后 朴氏, 1514-1577)를 들 수 있다. 그는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요절하여 32세에 후사도 없이 청상이 되었다. 그 유명한 문정왕후의 며느리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1545년 인종의 임종 때 인성왕후가 곁에 있었던 것 같다. 인성왕후가 인종의 유교(遺敎)를 언문(諺文)으로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중전이 왕의 임종 시 들었던 유교(遺敎)를 조정에 전달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난다. 인종의 유교(遺敎)를 인성왕후가 ‘언서’(諺書)로 작성하여 영의정 윤인경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승지와 사관들이 보고 다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조정에 공포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대신들이 인성왕후에게 청하여 인종의 행장수찬(行狀修撰)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인성왕후는 인종의 생전 가언(嘉言)과

44)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p. 86-105.

45)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p. 105.

선행(善行)을 적은 장문의 언서(諺書) 한 장과 임종 시 유언(遺言)을 적은 다른 언서(諺書) 한 장을 내렸다.<sup>46)</sup>

반면에 고려 시대에 이런 일도 있었다. 고려 경종 6년, 중국으로는 송나라 때 일이다.

과인이 매양 『禮經』을 보고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글을 대하여 탄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오늘에 이르러 좌우의 궁녀들을 이미 물러가게 하였다. 설혹 생명이 연장되지 못하고 갑자기 大期에 이른다 한들, 다시 무엇을 한탄하겠는가?<sup>47)</sup>

고려 경종 때면 조선의 영향만은 아닌 듯하다. 『禮經』의 그 구절을 들어 곁에 있던 궁녀들을 다 나가게 했다. 이로써 보건대, 분명한 것은 임종 시의 남녀유별이 조선 시대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 5. 결론; 임종 시 남녀유별의 근거

임종 시 남녀유별의 근거는 『禮記』 「喪大記」에 있는 “男子不死於婦人之手, 婦人不死於男子之手” 문장으로 보인다. 사전에는 남자가 여자 손에서 죽지 않는다는 것이 “將帥(장수)가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며 하는 말”<sup>48)</sup>이란 해석도 있다. 진호(陳澹, 1261-1341)의 『禮記集說』 주석에 따르면, “男子不死於婦人之手, 婦人不死於男子之手, 惡其褻也”라

46) 이경하(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pp. 405-411.

4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1996), 「고려 경종 6년, 981년, 가을7월」, 『국역 동국통감 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 328-329.

48) 조기형 · 이상억(2011), 『한자성어 · 고사명언구대사전』, 파주: 이담북스, p. 194.

했다. 여기서 설(襲)은 ‘더럽다’, ‘친압하다’의 뜻인데, 정범섭은 ‘친압하다’로 본 듯하다.<sup>49)</sup> 그 번역을 보자.

남자는 여자의 손에서 죽지 않고, 여자도 남자의 손에서 죽지 않는 것은 남녀 사이에서는 너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sup>50)</sup>

본고의 목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문, 묘지명, 행장 등과 「즈기록」 등 죽음을 계기로 지은 글에서 임종 시의 남녀유별을 비롯한 형상화를 고찰하고 그 근거가 되는 ‘고서’를 찾아보려 하였다. 그 고서는 『禮記』였다. 임종 시의 남녀유별은 경전의 근거는 분명하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현실에서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하였다.

임종 시의 남녀유별에 관한 한, 17세기에는 해당 기사가 전혀 없고, 18세기에는 많고, 19세기에는 오히려 적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는 그나마 자유로운 시대 아닌가? 여성의 문집 간행이 이 시기에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여성의 자유 진흥을 뜻하지는 않는다. 허난설헌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서 보듯, 18세기는 오히려 가부장적이었다.<sup>51)</sup> 강해지는 여성들의 욕구를 이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더 강하게 누르는 듯 보이던 시대였던 것 같다. 가문마다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층이 나마 여성사를 재구하는 것이 과제이다.

49) 한길연(2010),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 198-199. 이 논문에서 언급한 조호익의 『가례고증』은 『예기』를 재해석하고 주를 단 조선시대에 흔한 예설 가운데 하나이다. 예를 들어 김장생의 『疑禮問解』와 같은 유이다.

50) 정범섭 역(2015), 『譯註 禮記集說大全·喪大記』, 고양: 학교방, p. 5.

51) 이경하(2004),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2-127.

이 자료들을 통해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재생산해 왔는지, 여성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그리고 여성은 그 안에서 주체로 혹은 타자로 존재해 오면서 어떻게 틈을 만들어냈는지가 조금씩 연구의 지평에 떠오르고 있다. 이제 조선후기라는 큰 지평에서 개인 여성, 집단 여성의 삶을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원근을 조절하며 조망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여성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것이 이 자료들을 번역 출간하는 우리의 기대이다.<sup>52)</sup>

그 기대처럼,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여성생활사자료집의 활용도를 높여 여성의 미시적, 생활사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도 그 일환이다. 임종은 죽는 자에게나 산 자에게나 생활이다. 조선 시대까지 임종 때도 남녀유별이 예의 이름으로 존재했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본고에서 밝혔다.

남는 문제는 하층 여성의 기록으로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의 임종에 관한 기록을 폭넓게 살피는 것이다. 그러자면 유교사회 남성들의 임종장면을 기록한 <고종기>를 비롯하여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제문, 묘지명, 행장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온전한 여성사는 온전한 남성사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

52) 김경미(2013), 「서문」, 차미희·강성숙·김경미·이경하·조혜란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9』, 서울: 보고서, p. 5.

## 참고문헌

### 【자 료】

- 강성숙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서울: 보고사.  
\_\_\_\_\_ (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5』, 서울: 보고사.  
김경미·김기림·이경하·조혜란·황수연 역주(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서울: 보고사.  
김경미·김기림·김현미·조혜란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서울: 보고사.  
김기림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_\_\_\_\_ (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3』, 서울: 보고사.  
김남이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7』, 서울: 보고사.  
\_\_\_\_\_ (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 서울: 보고사.  
김현미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4』, 서울: 보고사.  
\_\_\_\_\_ (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5』, 서울: 보고사.  
서경희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6』, 서울: 보고사.  
\_\_\_\_\_ (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6』, 서울: 보고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1996), 『국역 동국통감 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경하 역주(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정법섭 역(2015), 『譯註 禮記集說大全·喪大記』, 고양: 학교방.  
정형지·김경미 역주(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서울: 보고사.  
조기형·이상억(2011), 『한자성어·고사명언구대사전』, 파주: 이담북스.  
조혜란·이경하 역주(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서울: 보고사.  
차미희·강성숙·김경미·이경하·조혜란(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9』, 서울: 보고사.  
풍양 조씨, 김경미 역주(2014), 『자기록』, 서울: 나의시간.  
황수연·김기림 역주(2006),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2』, 서울: 보고사.  
황수연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7』, 서울: 보고사.  
\_\_\_\_\_ (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8』, 서울: 보고사.  
\_\_\_\_\_ (2009),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서울: 보고사.

홍학희 역주(2013),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서울: 보고서.

【논 저】

- 김경미(2014),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 김승혜(1998), 「‘부부유별’의 해석학적 역사와 현대적 전망」, 『孔子學』 4-1, 한국공자학회.
- 김정경(2018),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 박무영(2003),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회』 32, 한국한문학회.
- \_\_\_\_\_(2001), 「호연재 「자경편」의 서술방식과 여성문학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박옥주(2001), 「풍양조씨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 박혜숙(2001),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 <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 신동원(2014),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 파주: 들녘.
- 이경미(2007), 「남녀유별 예의식 [내외법]이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 『服飾』 57-1, 한국복식학회.
- 이경하(2018), 「상층여성의 임신으로 인한 죽음의 양상 :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 \_\_\_\_\_(2004), 「여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3), 「15-16세기 왕후의 국문 글쓰기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 이종묵(2011), 『부부』, 파주: 문학동네.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1990), 『임종과 간호: 호스피스 케어』, 서울: 수문사.
- 이희재(2008), 「유교가례의 변용과 창조적 계승」, 『유교사상문화연구』 31, 한국유교학회.
- 조수미(2015), 「<자기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동 묘사와 그 의미」, 『민

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길연(2010), 「<유씨삼대록>의 예법(禮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홍인숙(2016),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 불행감의 근원과 애도문학으로서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_\_\_\_\_ (2012), 「<즈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원고 접수일: 2019년 1월 6일

심사 완료일: 2019년 1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2월 8일

ABSTRACT

---

## Gender Segregation at the Time of Death

Lee, Kyungha\*

This study considers the manifestation of ‘gender segregation’ at the ‘end of life’ (i.e. hour of death), based on relevant records written by men (on women) and those written by upper-class women in premodern Korea. The text that provided the basis for such gender segregation was also identified; it was the passage ‘男子不死於婦人之手，婦人不死於男子之手’ that appears in the ancient *Book of Rites*.

Gender distinctions regarding practice at the hour of death are clearly set out in the ancient scripture but they were not clearly adhered to in reality; the principles could or could not be followed. Records on gender segregation at death were limited in the 17<sup>th</sup> and 19<sup>th</sup> centuries but relatively abundant in the 18<sup>th</sup> century.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at gender segregation at the time of death did exist in premodern Korea as a means of honoring proprieties.

---

\* HK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